

등교수업 '학생·교사 안전 우선'

전북교육청, 코로나19 학교 담당자 원격교육... 개정 지침 등 안내

이태원클럽 사태로 고3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일주일 더 연기된 가운데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등교수업 준비를 위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보건교사, 지역별 보건소 관계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날 협의회에서는 학교 방역 보완사항과 환자발생시 대비

방안 등을 안내했다.

또 오는 15일에는 각급 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지침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이날 교육은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3시30분 세 차례에 걸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으로 구분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각급 학교의 등교

수업을 대비해 개정된 코로나19 대응 지침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환자발생시 대비 요령 등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강사로는 전라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권근상 예방의학 전문의가 참여한다.

각급 학교 코로나19 담당자들은 공유된 링크를 통해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접속하면 되며, 도교육청은 원활한 강의를 위해 한 학교당 1명씩만 접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급 학교에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과 등교시, 급식시, 의심환자 발생시 등 각종 상황에 대비한 지침을 안내해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서 "한 학교도 예외없이 참석해 개정된 지침을 숙지하고, 등교 이후 안전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교육문화회관, 직원 맞춤형 연수

남원교육문화회관은 직원 업무역량 강화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내가 만드는 맞춤형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고객 지향 소통 기술' 강연을 시작으로 5개 주제 강연 및 체험, 총 16시간의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13일 정읍시립미술관 이흥재 명예관장의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 강연이 회관 6층 전시실에서 진행됐다. 이 외에도 '생애주기별 도서관 자료 활용 방법', '평생교육 프로그램 체험'(운봉 국악의 성지), '선진 도서관 견학'(충남 도서관)으로 꾸러진 연수 과정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지역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보다 내실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교육문화회관 담당자는 "이번 맞춤형 연수를 통해 직원 간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지므로써 업무 능력과 향상된 이용자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윤애 센터장)는 12일 장수군을 시작으로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미 지정 지역내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관기관 및 기업 협력회의를 순회 개최한다.

여성일자리 창출, 지역 기업과 머리맞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7개 군 유관기관·기업 협력회의 순회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윤애 센터장)는 12일 장수군을 시작으로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미 지정 지역* 내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관기관 및 기업 협력회의를 순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임실, 순창, 부안, 고창, 무주, 진안, 장수

군 단위 일자리창출협력회의는 지역 내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해 평소 적극적인 고용 창출을 실행하고 있거나 약속한 기업들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릴 예정이다.

7개 군 중 첫 번째로 추진한 장수군

의 경우 군청 주민복지실 김덕남 실장을 비롯해 (주)천본 등 총 15개 기업이 참여했다.

참여기업 간 네트워크는 물론 고용센터 등을 통해 2020년 달라지는 정부고용정책 등 정부 일자리 지원 사업 설명회와 직장문화개선을 위한 전문 노무컨설팅도 함께 추진돼 기업 고용난 해소와 경영활성화에도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이윽고 이날 함께 진행된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식에서는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구축해 여성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에 나설 수 있는 기업문화 구축에 앞장서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장수군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식은 (주)천본, 코렌스코리아(주), 나뭇리조트(주), 밀알노인복지센터, 장수지역자활센터, 제이비포진산업(주), 동우당제약(주) 등 7개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장수군 여성일자리창출 협력회의 대표기업으로 참여한 (주)천본 김외훈 부장은 "즉석 조리식품을 가공 생산하는 회사 특성상 1인가구와 맞벌이 가정이 주류 타깃이다"며, "이번 여성친화기업 협약을 통해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만들기에 노력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함으로써 마음 놓고

직장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애 센터장은 "일자리창출협력회의는 도내 새일센터 미 지정 지역 내 여성일자리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지역 내 여성친화 및 유망기업들의 네트워크는 물론 여성친화 환경 조성을 통한 재직여성 고용유지와 고용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청 김덕남 주민복지실장은 "이번 협력회의를 통해 지역 내 기업 인력난 해소와 일과 생활간 균형 문화 환경 구축, 미 취업여성에게는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오늘 참여한 기업 간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장수군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원광대 로스쿨, 위상 '업그레이드'

제9회 변호사시험 50명 합격 '역대 최대'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로스쿨이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역대 최다인 50명을 합격시켜, 개인 이래 총 320명의 법조인을 배출하게 됐다.

법무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제9회 변호사시험 전국 로스쿨별 합격자 통계에서 원광대 로스쿨은 전국 25개 로스쿨 중 입학정원(60명) 대비 합격률(83.3%) 14위, 총 응시자 대비 합격률 20위, 9기 졸업생 수 대비 합격률 17위를 차지해, 한 해 사이에 괄목한 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총 응시자 대비 합격률 순위는 작년보다 5단계 올랐으며, 호남·재주권 4개 로스쿨 중에서는 전남대에 이어 2위에 오르는 등 상승 기조를 나타냈다.

지방 로스쿨들이 여러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원광대 로스쿨의 확연한 성적 상승은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과 교수들의 헌신적인 지도, 학생들의 노력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져 성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배경에는 지난해

변호사시험 합격률 순위 최하위권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전회위복으로 삼아 합격률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원광대 로스쿨은 양질의 다수 법조인 양성 목표에 맞춰 변호사시험 준비에 적합한 정규교육과정 개편, 비정규 학생지도프로그램 대폭 확충, 졸업생 멘토프로그램 평가제도 정비 등 다각적인 제도 정비를 시행해 왔다.

김덕중 로스쿨 원장은 "합치 않은 상황에서 학교방침에 따라 열심히 공부해 준 학생들과 성실하게 지도해주신 교수님들,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임에도 세심한 지원을 해주신 총장님 이하 학교 당국에 감사하다"며, "우리는 지금 일회일비하지 않고 멀리 보면서 체제를 정비하고, 앞으로 성적의 미소한 등락이 있겠지만, 체제정비와 우수 인력배출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해 가까운 시기에 선도적 지방로스쿨로서 확고한 위상을 확보해 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익산=정양원기자

원광대, 재학생 10여명 이태원 방문

자진신고... 대면수업 전면금지

원광대학교가 대면 수업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일부 재학생이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결정됐다.

12일 원광대학교에 따르면 재학생 중 10여명의 학생이 이태원을 방문했다고 자진 신고함에 따라 이날부터 대면수업을 전면 금지했다.

원광대는 지난 11일부터 25일 미만의 소규모 실험·실습 위주로 강의를 진행

해 왔다. 그러나 재학생 중 일부가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전면 금지했다.

또 오는 25일 이후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이론 교과목 역시 온라인 강의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학 관계자는 "일부 학생이 이태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대면 수업을 전면 금지했다"며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상황실 등으로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전주대 1학기 이론 강의 전체 온라인 수업 전환

전주대학교는 12일 대책회의를 거쳐 1학기 이론 강의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다.

다만 대면수업이 필요한 실험, 실습,

실기 수업에 한해서만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조치 준수 하에 제한적으로 오프라인 교육이 진행된다.

/정은성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